

#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시사점

---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2025.05.13

이준서 (동국대)

# 목 차

---

## 1. 일본 자본시장 개혁

### (1) 현황

### (2) 연성규범 제정 (enactment of stewardship and governance code)

### (3) 거래소 구조조정 (market restructuring)

### (4) 시장재편 후속조치 (follow-up of market restructuring)

## 2.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 주식시장 체재 개편

### (2) 지배구조 개선

### (3) 연기금 역할 강화

## 주식시장 수익률

### 주가지수 누적수익률

- 2010년1월 대비 2024년말 기준
  - S&P 500 474.4%
  - Nikkei 225 415.6%
  - KOSPI 160.3%
- 한국시장 우세: 2010, '17, '20

### 일본 주식시장의 약진

- 2014-15: 거버넌스 개혁
- 2022: 시장개혁
- 2023~: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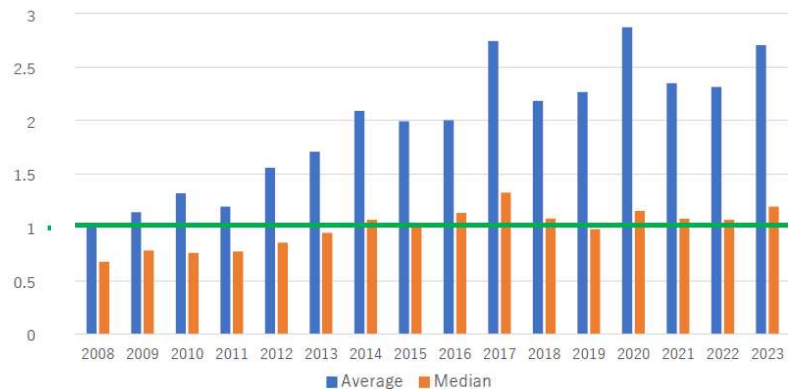
한, 미, 일 대표 주가지수 누적수익률



주: 2010.1.1을 100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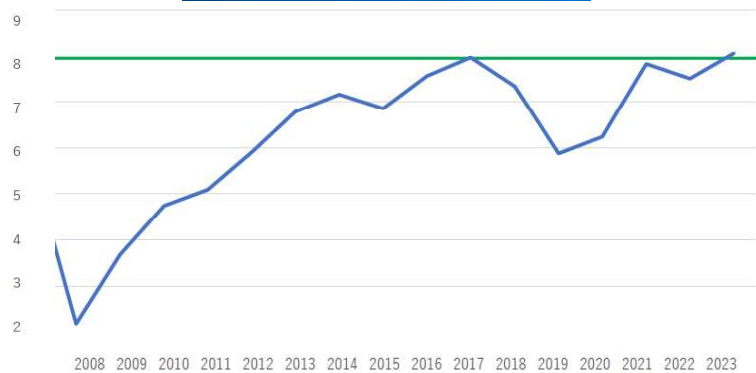
# PBR ROE 추이

상장기업 PBR



PBR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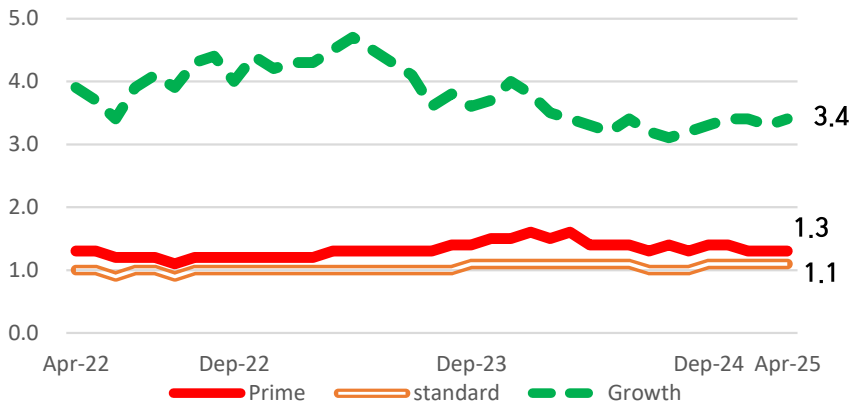
상장기업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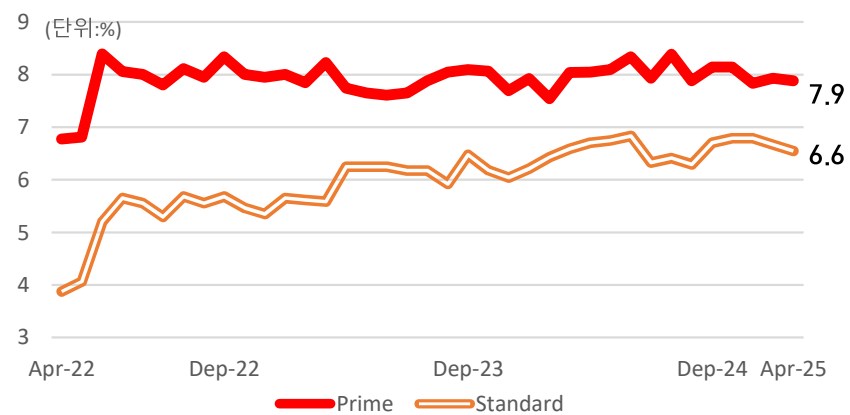
ROE = 8%

출처: 일본거래소그룹 주: 시장개편이후 수치는 consolidated weighted average

시장재편 이후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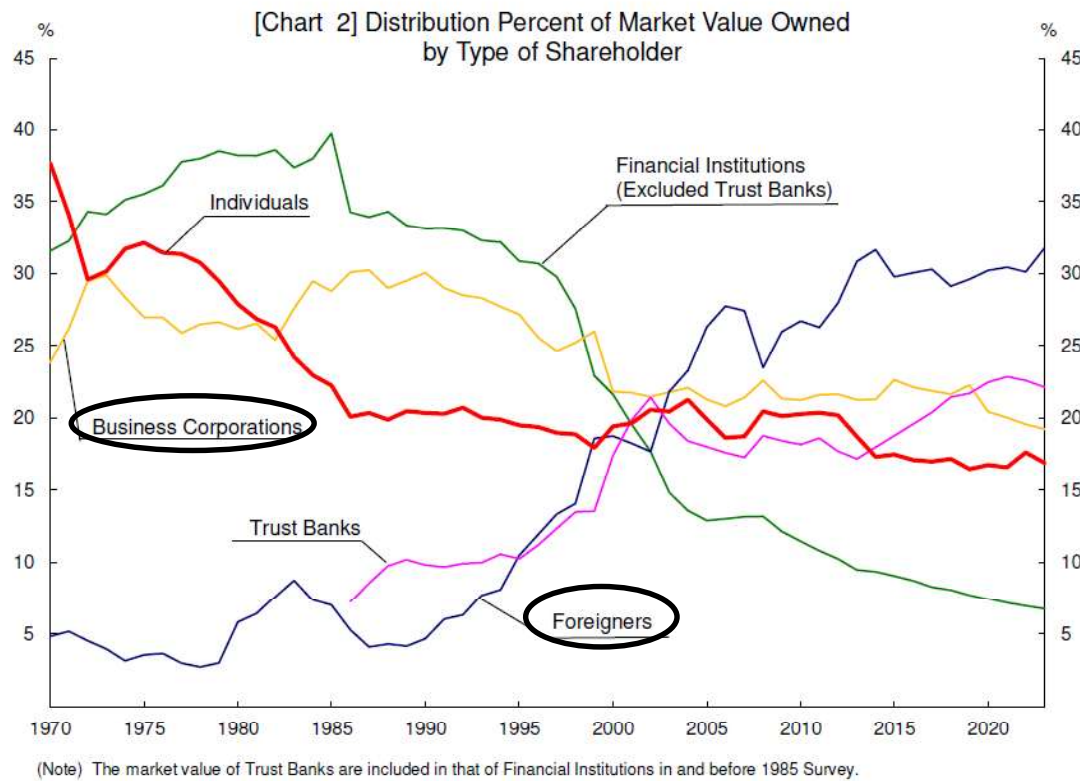


시장재편 이후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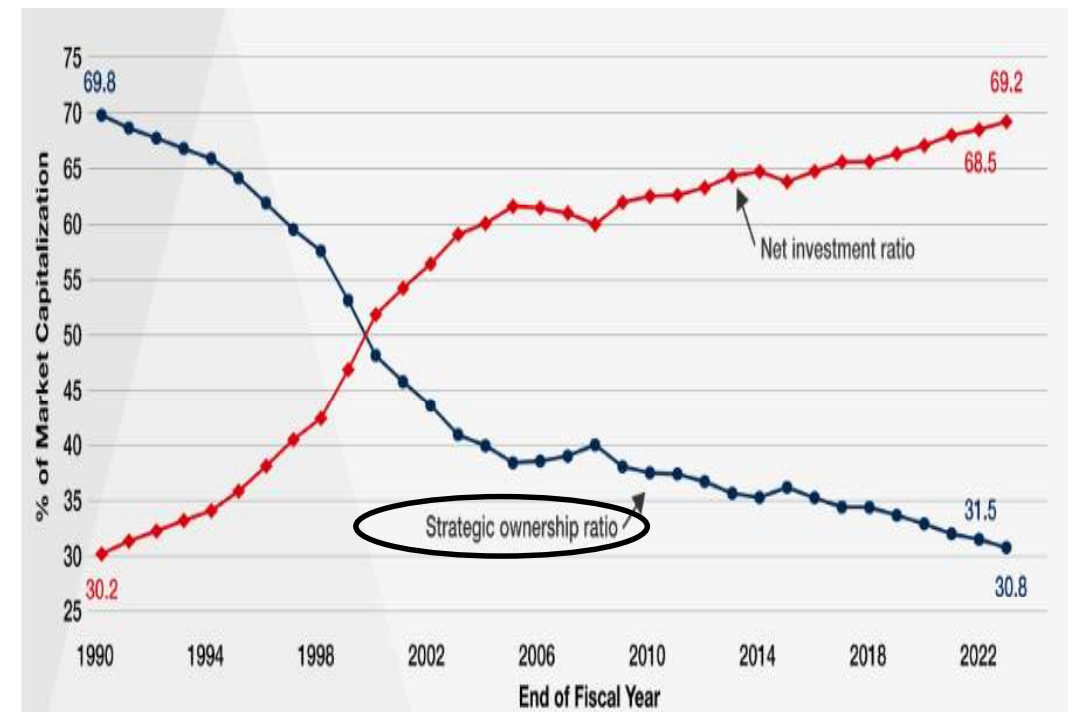
# 소유지분 구조

## 투자자별 지분율



출처: 일본거래소그룹

## 전략적 상호보유주식과 순투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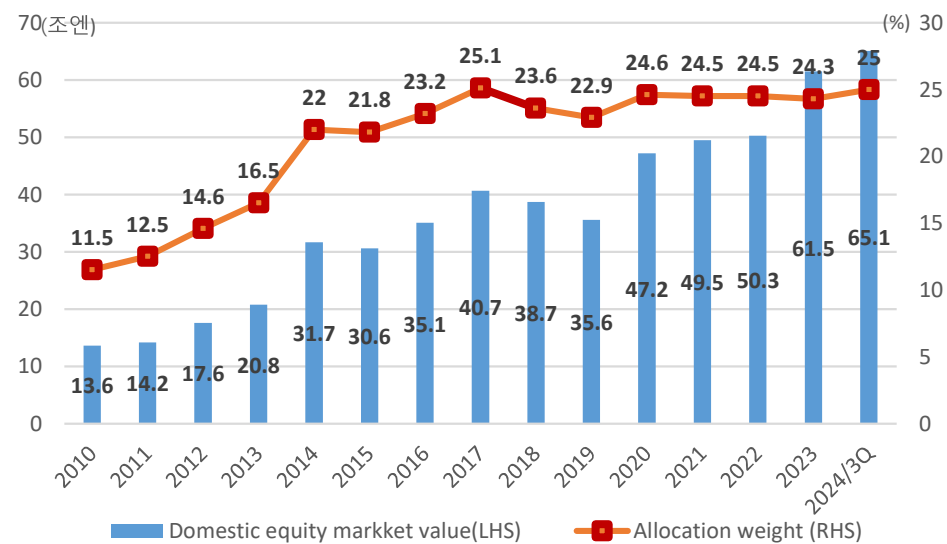


Strategic holding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business corpor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presumed trusts among trust banks), and stocks held by individual investors with a holding ratio of 10% or more.

출처: 노무라증권

# GPIF 자국 보유주식

국내 주식 투자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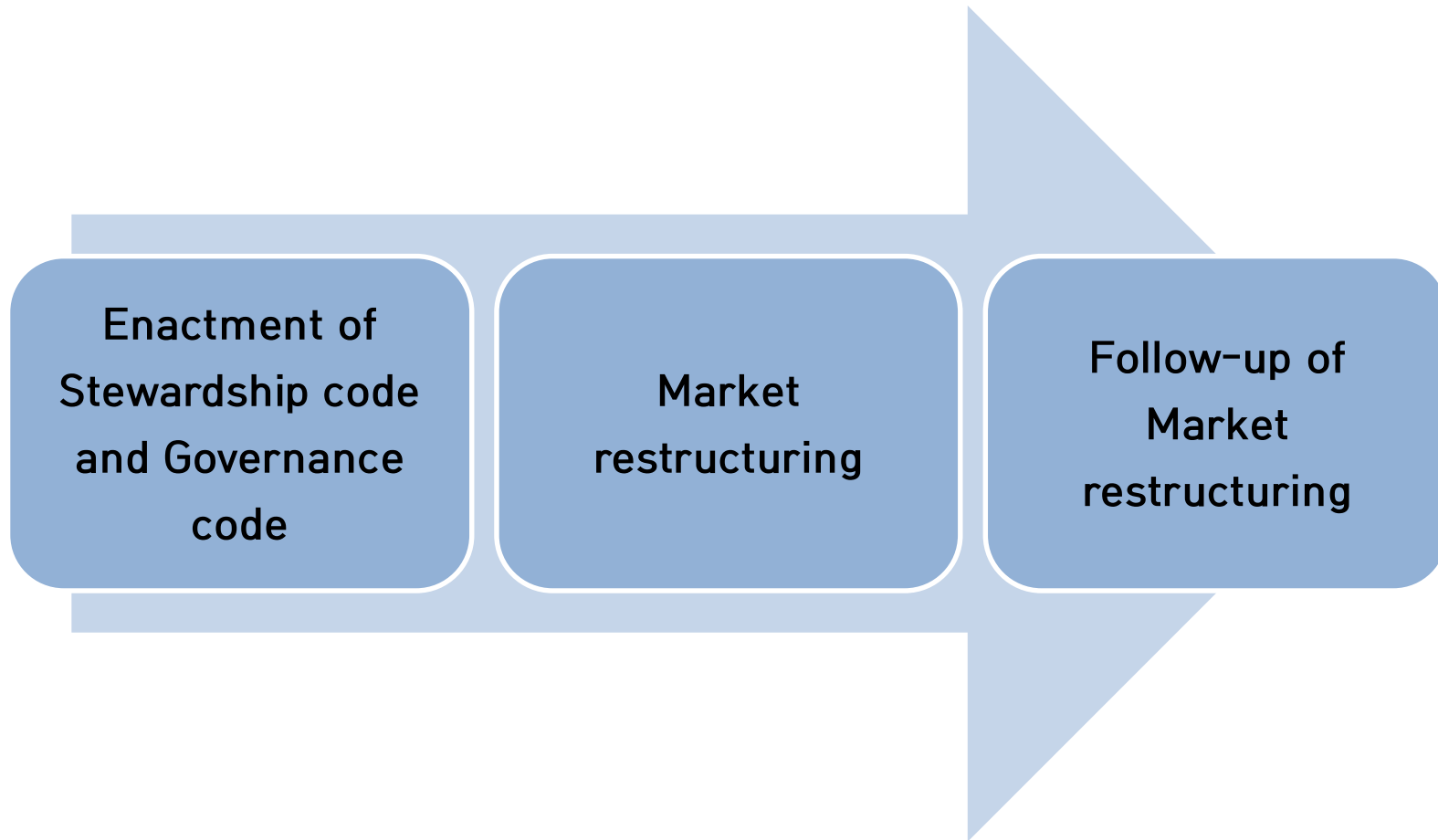


출처: GPIF

직접/간접투자 비율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Domestic equities	Passive	86.71	81.52	90.62	90.44	90.58
	Active	13.29	18.48	9.38	9.56	9.42
Total	Passive	83.91	79.28	77.31	76.28	77.87
	Active	16.09	20.72	22.69	23.72	22.13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Domestic equities	Passive	90.93	92.97	93.65	93.06	95.51
	Active	9.07	7.03	6.35	6.94	4.49
Total	Passive	79.21	82.69	85.21	82.82	82.31
	Active	20.79	17.31	14.79	17.18	17.69

## 자본시장 개혁 프로세스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14)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초</li><li>• Ito('14) 보고서 계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ROE, 자본효율성, 기업지배구조, 주주소통 방안 제시)</li></ul>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투자자의 책임 명시</li><li>• 7원칙 및 세부지침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관리, 모니터링, 주주관여, 의결권 행사, 정기적 보고, 지속가능성장)</li></ul>
접근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칙 중심</li><li>• Comply or explain</li></ul>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적의무 없음</li><li>• 코드 수락 시, 코드 정책에 따라 행동</li><li>• 적용대상은 기관투자자</li></ul>

	1차 개정 (2017)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결권 행사 결과를 기업 및 의안별로 공표</li><li>• 찬반이유를 명확히 설명</li><li>• 기관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상황 관리 및 공개</li></ul>

	2차 개정 (2020)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용자산을 국내외 상장주식 이외 대체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li><li>• 적용대상을 의결권자문사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제공자로 확대</li><li>• ESG 투자활동 및 성과 공개</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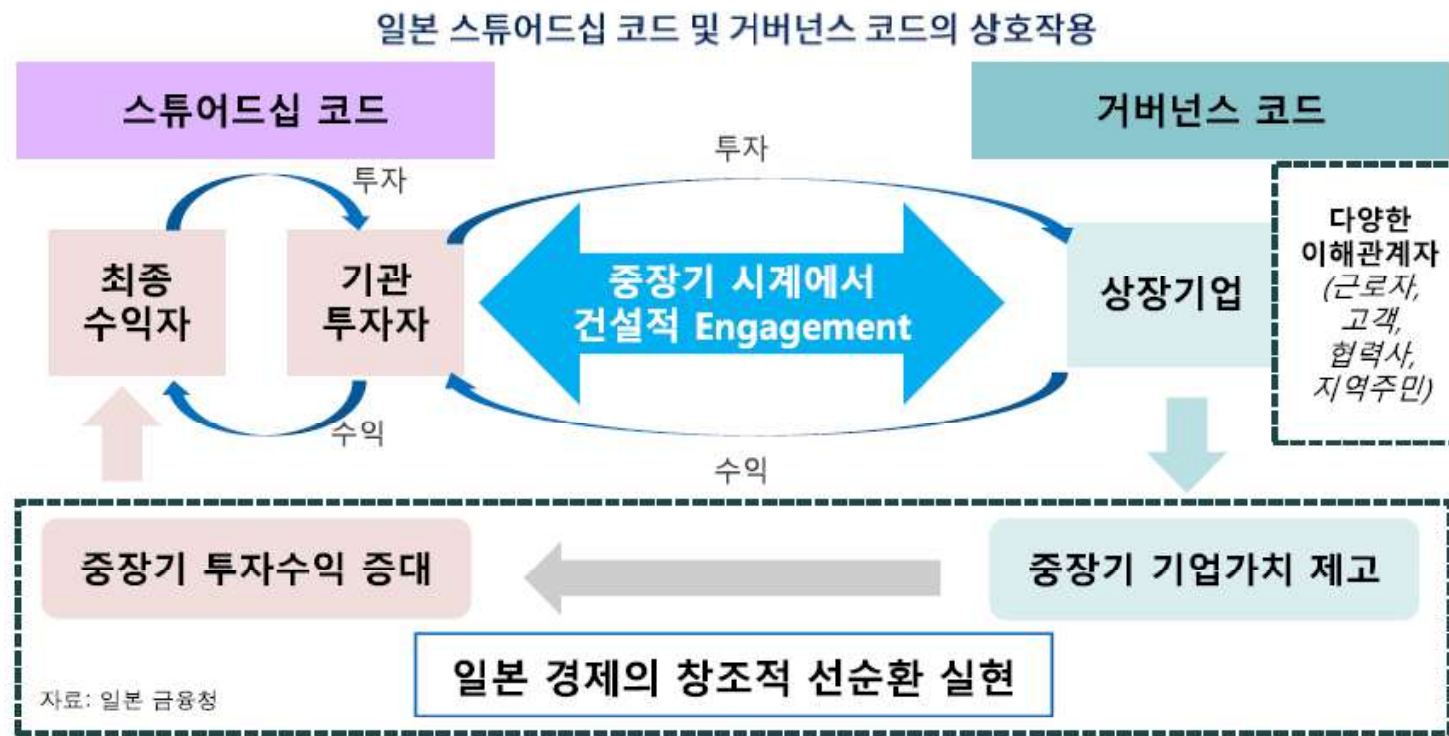
# 기업 지배구조 코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기초</li><li>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한 지배구조의 실현</li><li>5대 원칙: 주주균등권리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정보공시 투명성, 이사회 책임, 주주와의 대화</li></ul>
----	---

항목	제정 (2015년)	1차 개정 (2018년)	2차 개정 (2021년)
도입 배경	아베노믹스에 따른 구조개혁 일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17)과 연계	TSE 시장구조 개편에 대응
독립사외이사 요건	최소 2인 권고	기본 원칙 유지	프라임 시장은 이사회 1/3 이상, 지배주주 기업은 과반수 이상
감시 기능 강화	이사회 감독 책임 강조	CEO 선정·해임 과정 및 경영진 평가 기준 공개	추천·보수 위원회 설치 및 독립사외이사 중심 구성
상호지분 (Cross-shareholding)	보유 목적 설명 및 정기 검토 권고(축소권장)	매각 검토 및 투표방침 명시화 요구	보유 합리성 설명 의무화와 공시 강화
자본 효율성	ROE 등 자본수익률 관리 권장	ROE, 자본 비용 등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 권장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적극적 자본효율 개선
주주와의 대화	IR 활동 권고	기관투자자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권고	영어 공시 확대, 프라임 기업의 국제 IR 대응 강화
ESG/지속가능성	직접 언급 없음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권장	지속가능성 전략 및 기후리스크 관련 정보 공시 권장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언급	여성, 외국인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이사회 다양성 목표 설정 및 진척 상황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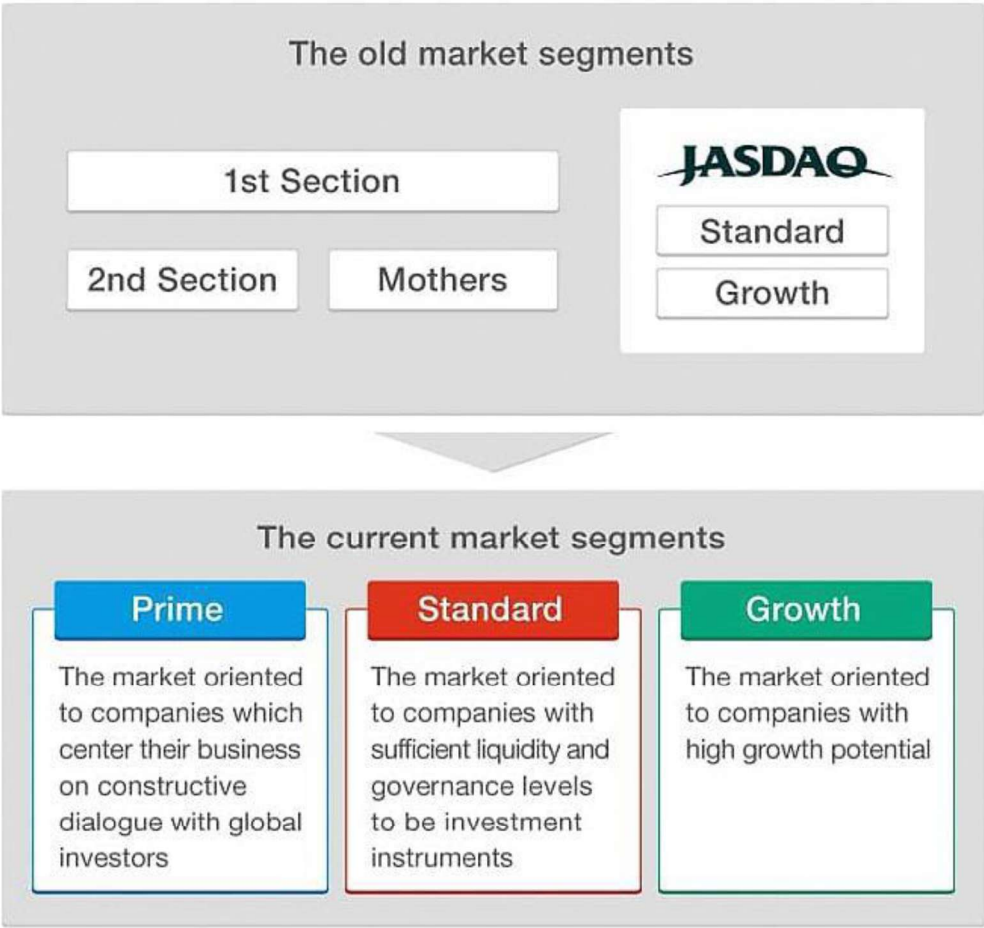
#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의 상호작용



자료: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 동인 및 국내 시사점, 이효섭 (2024)

# 거래소 개편 ( ‘ 22 )

항목	프라임(Prime)	스탠다드(Standard)	그로스(Growth)
유통주식 수	2만주 이상	2천주 이상	1천주 이상
유통주식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10억엔 이상	5억엔 이상
유통주식 비율	35% 이상	25% 이상	25% 이상
시가총액	250억 엔 이상	요건 없음	요건 없음
순자산 요건	연결 기준 50억 엔 이상	연결 기준 양(+)	요건 없음
사업실적 요건	2년간 순이익 25억엔 이상 or 매출액 100억엔 이상&시가총액 1,000억엔 이상	순이익 1억 엔 이상	고성장 입증가능 사업 계획 제출 및 주간사 평가
지배구조 요건	기업지배구조 코드 전면 적용, 독립 이사 비율 1/3 이상 권고	기업지배구조 코드 기본 원칙 적용	기업지배구조 코드 기본 원칙 적용
상장유지 요건	상장 요건과 동일, 미충족 시 일정 기간 내 개선	상장 요건과 동일, 미충족 시 일정 기간 내 개선	상장 후 10년 이내 시총 40억엔 이상 달성
상장기업 수	1,839	1,466	466



자료: 일본 거래소 그룹

## 전 환 조 치

### ■ 전환조치 종료

- 전환조치: 거래소 시장 재편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장기업들에게 완화된 상장유지 요건 적용
- 전환조치 종료: 25년 3월 31일
- 적용대상: 상장 유지 조건 미 충족 기업
- 향후절차
  - 개선기간: 1년 (실질적 종료: 26년 3월 31일)
  - 개선기간 내 미 충족 시: 감리종목, 상장폐지예정종목으로 지정, 6개월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 개선 계획 공시 시 종료일이 26년 3월 이후인 경우 해당 계획의 종료일까지 상폐조치 유예

### ■ 전환조치 대상 기업

- 기업 수: 프라임 68, 스탠다드 152, 그로스 49 ('24년 3월기준)
- 75%가 상장유지기준 충족 어려움 호소

### ■ 기업대응 방안

- 시장 변경: 프라임에서 스탠다드로 이전
- M&A 또는 MBO 확대: 전환조치 종료 경과에 따라
- 상장폐지: 자발적 또는 강제적
- '25년 1분기 총 31개 상폐기업 발생
  - 프라임 8사, 스탠다드 19사, 그로스 4사
  - M&A(투자펀드 포함) 23개, MBO 8개
  - 기준 미 충족 기업 7사

# 기업가치 제고 요구( ‘23~)

	자본비용과 주가 고려 경영
배경	<div><div>• Prime의 50%, Standard 기업의 60%가 ROE 8% 미만, PBR 1 미만</div><div>• TSE에서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하는 경영 요청</div></div>
핵심내용	<div><div>• PBR&gt;1 이상, ROE&gt;8% 이상을 권고</div></div>
권고사항	<div><div><div>• 자본비용과 수익성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분석</div><div>이사회가 자본비용과 수익성, 시장 평가 등을 분석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할 것을 요구</div></div><div><div>• 개선 계획의 수립 및 공시</div><div>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공시하도록 권장</div></div><div><div>•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실행</div><div>공시된 계획에 따라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실행하고,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도모</div></div><div><div>• 진행 상황의 분석 및 공시 업데이트</div><div>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공시 내용을 갱신하여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div></div></div>
점검	<div><div>• 24년 1월부터 매월 의무이행 기업 목록 거래소 홈페이지 게시</div></div>

	주주와의 대화 강화
배경	<div><div>• Prime 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와의 건설적 대화 및 관련 공시’ 요청</div></div>
권고사항	<div><div>• 주요 대화 담당자(경영진, IR 부서 등) 명시</div><div>• 대화 대상 주주의 유형(국내외, 액티브/패시브 등) 및 관심사 설명</div><div>• 대화 주제 및 기업에 유익했던 사례 공유</div><div>• 대화 결과에 따른 경영진 또는 이사회 피드백 여부</div></div>
	영문공시 강화
배경	<div><div>• 프라임 기업에 대해 영문 공시의 확대를 권장</div><div>•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일본 기업 투자 매력 향상을 위한 전략</div></div>
권고사항	<div><div>• ‘23년 말 기준, 프라임 기업의 98.2% 영문 공시</div><div>• ‘25년 4월부터 프라임 기업 재무제표 및 공시 정보의 영문 공시 의무화</div><div>• 일본어 공시와 동일자에 영문 공시 권장</div></div>

# 후속위원회(follow-up council) 활동

## Future Measures in the Growth Market

Listing Department,  
Tokyo Stock Exchange, Inc.

April 22, 2025



## Actions Relating to Expiration of Transitional Measures

Listing Department,  
Tokyo Stock Exchange, Inc.

April 22, 2025



## Initiatives regarding “Management that is Conscious of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

Tokyo Stock Exchange Listing Department  
February 18, 2025



## Revising the Code of Corporate Conduct on MBOs and Subsidiary Conversions

Tokyo Stock Exchange Listing Department

February 18, 2025



## Status of Companies Subject to Transitional Measures

Listing Department,  
Tokyo Stock Exchange

February 18, 2025



## The Investor’s Perspective on Such Matters as Parent-Subsidiary Listings

Listing Department  
Tokyo Stock Exchange, Inc.

February 4, 2025



## Revision of the List of Companies That Have Disclosed Information Regarding “Action to Implement Management That Is Conscious of Cost of Capital and Stock Price”

Tokyo Stock Exchange Listing Department  
September 27, 2024



## Revising the Code of Corporate Conduct

Tokyo Stock Exchange, Listing Department

October 31, 2024



## Status after Market Restructuring and Future Follow-up

Tokyo Stock Exchange Listing Department  
May 21, 2024



자료: 일본거래소 그룹

## 평가

### 특징점

- 상호보유지분 해소: 유통주식 시총이나 비율 요건 충족
- 경영진의 인식 전환: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실행
- 외국인 일본 주식 순매수액 증가
- 투자자와의 건설적인 대화 강화: 프라임 시장 소형상장 기업의 기관투자자와의 대화 기회 확대
- 주주환원율 60% 육박
- 글로벌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화
- 전환조치 종료 후 대응방안 모색: 다른 기업과의 합병, 지배주주에 의한 인수, MBO
- 기업행동규범(corporate code of conduct) 필요성

### 외국인 일본 주식 순매수누적액



자료: BOJ 통계자료, 닛케이, 한국경제신문

### 상장기업 주주환원율





# 거래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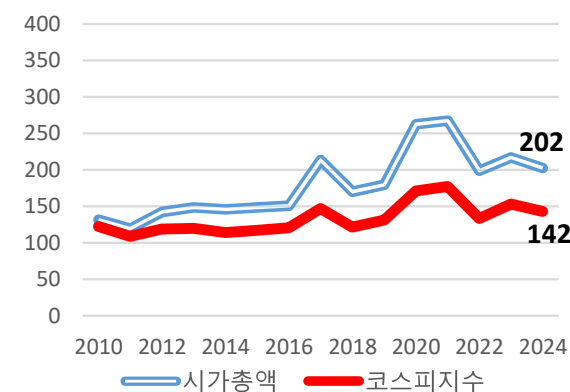
## 현황

- 시가총액 대비 과다한 상장기업 수, 코스피 대비 과다한 코스닥 기업 수
- 시가총액과 주가지수간 심각한 괴리
  - 한국과 일본의 시총 증가율은 유사, 지수증가율은 차이
  - 중복상장, 유통/발행주식수 등 이유
- 높은 한계기업 비율(24년 3분기말 기준)
  - 한국: 21.8% (코스피 10.9%, 코스닥 23.7%), 일본: 4%
- 낮은 퇴출 비율 (신규상장대비 상폐기업 비율, 23년 기준)
  - 한국: 16.9% (신규상장 112사, 퇴출 19사)
  - 일본: 72.6% (신규상장 84사, 퇴출 61사)
- MSCI DM지수 미포함 사유 중 3가지 거래소 관련
  - Investor registration & account set up, Availability of Investment Instrument, Information flow

## 한 미 일 주식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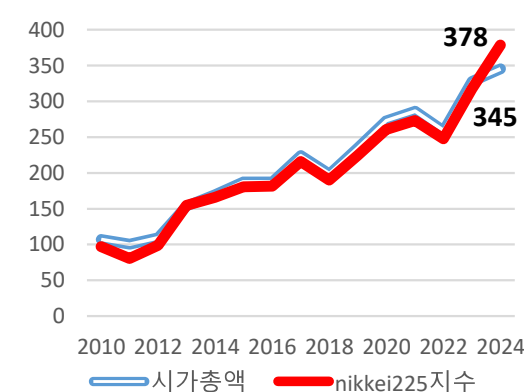
	기업 수	시가총액	구성
한국	2,670사	1.9조 달러	코스피 839, 코스닥 1,739, 코넥스 129
일본	3,822사	6.6조 달러	프라임 1,636, 스탠다드 1,621, 그로스 565
미국	6,113사	59.4조 달러	NYSE 2,223, NASDAQ 3,890

## 한국 시총과 주가지수 추이



사료: 한국거래소, 일본거래소  
주: 2010.1.1을 100으로 환산

## 일본 시총과 주가지수 추이





## 거래소 개편

### 한국거래소 체제 개편

- 유가증권시장은 상하위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은 과감한 구조조정, 코넥스시장은 폐지
  - 유가증권시장은 지배구조 또는 주주환원 여부(연성규범화)에 따라 우수 및 표준(가칭) 시장으로 구분
  -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장유지 조건 강화로 과감한 퇴출
  - 코넥스 중 우수기업은 코스닥, 나머지는 K-OTC로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별로 상장기준 및, 유지기준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와 엄격한 적용을 통해 질 관리
- 지주회사로 전환
  - 기존 한국거래소는 서울거래소(가칭)로 개명
  - 신규거래소를 설립하여 중견기업 거래소로 특화
  - 또는 CBOT나 CME와 같이 파생상품시장부를 부산거래소(가칭)로 독립 기관화

### K-OTC 체계화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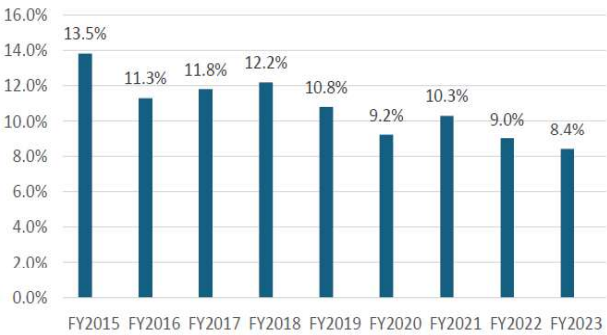
- 체제 개편
  - 등록/지정기업부를 우량/벤처/재기(회생)기업부로 구분
  - 우량은 대형비상장법인, 벤처는 4차산업 핵심기술 산업 기업, 재기(회생)는 상폐기업 중 회생가능 기업 등으로 분류
  - 비상장주식의 유통규제 완화 및 거래소 상장 시 각종 혜택 부여 등으로 기업들의 K-OTC 등록 독려
  - K-OTC 기업의 공시 및 재무제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투자자보호책 시행
-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및 상폐기업 투자자 보호 가능
  - IPO 이외에 새로운 자본회수 기회 제공
  - 부실상장기업의 신속한 퇴출 채널 제공 및 해당 기업 투자자에게 자본회수 기능 부여
  - 상장 전 기업 정보 투명성 증대로 공모시장 효율화에 기여

# 상 호 주   축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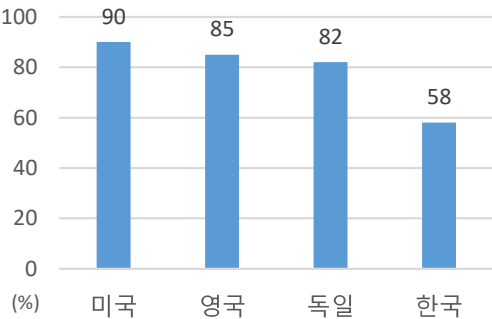
## 현황

- 높은 상호보유주식 (cross-shareholding)비율
  - 상장기업의 19.4% 상호주 보유
  -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실질적 상호주식 보유율은 50%를 초과할 것으로 추론
  - 지배구조왜곡 및 경영감시 악화, 자본효율성 저하 (ROE, PBR 감소), M&A 저해, 이해상충 및 불투명성 증대
- 유통주식수 감소 초래
  - 과도한 상호보유주식은 유통주식수 감소로 연결
  - 유통주식비율(free float ratio) 감소는 시장유동성 악화, 주가 왜곡 및 변동성 확대, 지수 왜곡 및 passive 자금 유입 악화, 일반주주 견제력 악화를 초래
- 일본 자본시장 개혁 키워드 중 하나
  - 유통주식 비율 준수: 상호주 매각

TOPIX 500 상호주비율



주요국 유통주식비율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23. 5. 1. 및 '24. 5. 14. 기준, 단위: %, %p)

구 분	총수일가			총수일가 이외					합계	
	동일인	친족	소계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소계 <sup>1)</sup>		
총수 있는 집단	'23년(72개)	1.7	2.0	3.7	54.7	0.2	0.2	2.4	57.5	61.2
	'24년(78개)	1.6	1.9	3.5	54.9	0.2	0.2	2.3	57.6	61.1
	증감	△0.1	△0.1	△0.2	0.2	0.0	0.0	△0.1	0.1	△0.1

자료: TOPIX 500 companies annual report, JP Morgan,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상 호 주 축 소

### 유통주식비율 권고

- 거래소 개편 시 연성규범화
  -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일본 프라임은 35%이상, 스탠다드는 25% 이상=> 비율 준수를 위해 상호주 매각 유도

### 상호주 의결권 제한

- 상호주 의결권 축소 검토
  - 현행 상법 상 상호주는 10%까지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9조의 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진정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전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기존 집단은 '14년이후 취득분, 신규집단은 지정일 이후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유통주식기준 지수 개발

- 대표지수 개발
  - KOSPI200 대용 유통주식 기준 지수 개발 후 ETF 대표 기초지수로 자리매김할 필요
  - 지수 편입 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유통주식 비율을 의무화
  - 상호주나 자사주 등 전략적 소유지분 축소 유도 가능
- 글로벌 시장 대표지수는 대부분 유통주식 기준

항목	유통주식 기준 지수	발행주식 기준 지수
시장 유동성 반영력	우수 (실제 거래 가능한 규모 중심)	낮음 (비유통 주식 포함)
지배력 있는 대주주 영향	축소	확대
패시브 ETF 추종 적합성	적합 (거래 가능 주식 중심)	부적합 (실제 매매 가능성과 불일치)
지수 왜곡 가능성	낮음	높음 (거래되지 않는 주식이 지수에 반영됨)
기관투자자 선호도	높음	낮음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사제 시행

- 형식과 실질의 괴리
  -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요건 및 공시사항으로 규정화
  - 사외이사 규정 및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사외이사 독립성 판단 기준 및 개별 평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기업지배구조보고서)
  - 실질은 경영진 및 기존 사외이사와의 학연, 지연, 친밀도
- 독립이사를 사외이사와 구분할 필요
  - 현행 사외이사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독립이사 도입 및 관련 규정 개정
  - 독립이사의 임기를 사외이사와 차별화
  - 독립이사를 보좌하는 별도의 사무국 독립 직원 채용

## 전문성 독립성 강화

- 주주추천 사외이사제 의무화
  - 주주제안 자격요건(비상장사 3%, 상장사 1%, 자본금 1천억원이상 0.5%) 대폭 완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
  -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원칙적 금지
  -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이상으로 확대
- 사외이사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평정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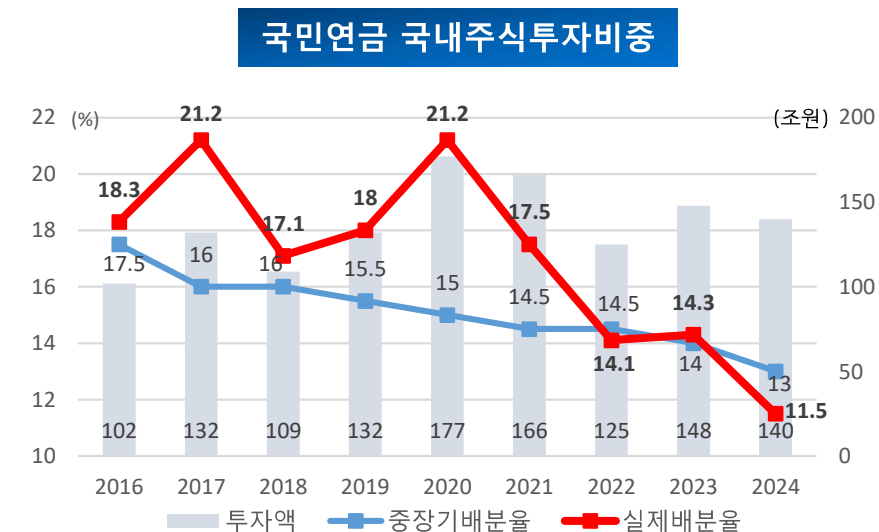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법제화

-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거래소 연성규범화도 대안

# 국내주식 투자비중 유지

##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고정화

- 국내주식 투자 비중 지속적 하락세
  - '20년 21.2% 후 지속적 하락세로 '24년말 11.5%기록
  - 투자금액도 150조원대에서 정체(GPIF 대조)
  - 중장기자산배분에서도 '29년 비중을 14%에서 13%로 하향
- 정책적 목적 하에 14% 유지 필요, 비율 하향 시
  -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약화: 최대 기관투자자, KOSPI 200 종목 수급공백으로 주가 하방 압력
  - 국내 실물경제와의 연계성 약화: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
  - 기회비용 및 수익률 우려: 일시적 현상 가능성
  - 시장안정기능 약화: 위기 시 매수 안정자, 장기자본 역할
  - 공적기능과 신뢰저하
- 타 연기금도 국내주식 투자비율 준수 권고할 필요



자료: 국민연금공단  
주: 중장기배분율은 향후 5년간 목표배분율

주요 연기금 국내주식투자비중				
연기금	CalPers	GPIF	ABP	CPPIB
투자비율	37%	25%	15%	14%

자료: 각 글로벌 연기금

## 수탁자책임 강화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확대

- 의결권 부실행사 가능성
  - 의결권 행사('21~'23 연평균): 1,198(투자기업 수), 799건(주총기준), 3,332건(안건기준). 반대 20.5%
  - 수책위 검토: 100건 미만. 2~3월에 집중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국내상장기업은 보유지분율 1% 이상 또는 국내주식 전체 대비 보유비중 0.5% 이상
  - 심도있는 안건 분석 불가: 주총 2주전 안건 공시
  - 해외 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불가
- 의결권 행사 체제 개편
  - 5%이상(268개)과 1%이상(641개) 지분보유기업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된 의결권 행사
  - 현 9인 체제의 수책위 위원 증원 필요
  - 전문성 강화: 실무위원을 포함한 지원조직 신설
- 대형 연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 권고

### 위탁운용사 의결권 일치성 확보 방안 모색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간 의결권 불일치 발생
  - 국민연금은 20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
  - 수탁자책임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 이해충돌 발생
  - 정보 비공개로 투명성 미흡, 위탁운용사별 기준 상이
- 연기금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개선 보완 필요

### 의결권자문기구 설립

- 별도기구 설립 또는 국민연금 역할 대행
  - 대부분의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자문기구의 권고 의견에 따라 의결권 행사
  - ISS나 Glass Lewis와 같은 글로벌 의결권자문기구 역할 가능한 K-의결권 자문기구 설립 환경 조성
  - 현재 한국ESG기준원이 일부 역할 수행하나 역부족

**감사합니다**